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253호 [무제 제 25762호] 주제 106 (2017)년 9월 10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반만년민족사에 위대한 강국의 시대를 펼친 조선로동당에 드리는 인민의 영광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민족사적대경사, 특대사변을 안아온 핵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축하공연 성대히 진행

위대한 병전의 기치높이 력사에 전무후무한 핵무력 건설대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우리 나라를 존엄높은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 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려 세운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에 드리는 천만군민의 심장의 노래, 시대의 찬가가 뜻깊은 9월의 하늘가에 울려퍼지고있다.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민족사적대경사, 특대사변을 안아온 핵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축하공연이 인민극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공연장소는 조선로동당의 전략적핵무력건설로선을 절대적으로 지지옹호하고 총직하게 만들어 자주와 정의의 장엄한 핵희생으로 지구상의 온갖 불의를 쳐물리치며 사회주의강대국의 필승불패성과 불가항력적인 위력을 만방에 과시한 자주적인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새차게 설매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리철주동지와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백두의 담력과 배짱, 사생결단의 선군이지와 불면 불휴의 애국헌신으로 병전의 험로역경을 앞장에서 헤치시며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들을 련이어 안아오시어 주체 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펼쳐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세우시고 핵무기병기화의 생은길을 한치한치 완강히 헤치시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천만년미패를 역적같이 담보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영원불멸할 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특출한 명도실력으로 국가핵무력강화의 최고봉을 단숨에 점령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 만고절세의 민족적영웅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환하신 영상이 무대매경에 모셔지고 우렁우렁하신 육성목음이 울리는 순간 장내에는 열광적인 박수가 터져오르고 격정의 대하가 뜨겁게 끓어올랐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높이 력사의 광풍을 쳐갈기며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위왕찬란한 미래를 펼쳐가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에 드리는 인민의 영원무궁한 영광과 감사의 정을 담아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가 승연히 울려퍼졌다.

우리 당의 위대한 승리에 운명의 피를기름을 잊고 죽어도 변치 않을 신념과 의지로 핵무력강화의 천만고비를돌을 완강하게 강행들과하며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를 철사관철하는 길에서 참된 삶을 빛내여가는 붉은 과학전사들의 투철한 정신세계를 반영한 관현악 《단숨에》, 남성중창과 남성합창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자》, 남성중창 《인생의 영광》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2 편 으 로 계 속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려져 올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국방과학부문의 책임일군들과 공로있는 핵과학자, 기술자들이 관람석에 나왔다.

대륙간탄도로켓트장악용 수소탄시험성

공에 기여한 성원들, 원자력부문 일군들,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출연자들은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이 탄생한 경사로운 9월에 수소탄의 거대한 피성을 가장 장쾌한 승전가로 어머니조국에 삼가 드린 개선영웅, 우리의 자랑스러운 핵과학자, 기술자들을 축하하여 환희로운 공연무대를 펼쳐놓았다.

애국가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여성중창과 남성합창 《김정은장군께 영광을》,

혼성중창과 남성합창 《영광드립니다 조선로동당이여》, 여성4중창 《영원한 메아리》, 여성중창 《사회주의 오직 한길로》, 여성3중창과 남성합창 《당이어 그대 있기에》, 여성독창과 남성합창 《우리의 신념》, 관현악과 남성합창 《빛나는 조국》 등의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핵무력건설대업을 완수하는것을 국사중의 국사로 내

